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18차 세션,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림과 주제, 결혼, 새 옷, 충만함과 거함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림과 주제, 결혼, 새 옷, 충만함과 거함입니다.

우리는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의 연합 그림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결혼 그림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세 가지 본문에서 결혼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친밀한 그림을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바울은 에베소서 5:22-32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스도와 신자의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1 고린도전서 6장, 실례합니다, 15-17절에서 그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영적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6:17).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의 교회의 결혼은 그들 사이의 구별을 없애지 않는다. 둘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결혼이라는 은유는 두 사람을 혼동시키지 않는다. 이는 추종자들이 신에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의 형태와는 다르다.

친밀함.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가장 친밀한 그림이며,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 결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연합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의 가장 친밀한 구절에서 그는 인간의 몸과 성적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린도전서 6:16.

신자들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됩니다. 캠벨은 좋은 적용을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은유는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윤리적 제약을 뒷받침하고, 영적 불충실을 금지하며, 교회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믿는 이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다룬 것은 성령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느니라” (17절). 절기는 그리스도인과 창녀 사이의 성적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믿는 이의 몸은 이미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 몸은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합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는 결혼 은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주도권을 잡고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의 신부인 교회는 그의 애정의 대상이며 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인용문, 그 자신이 몸의 구원자입니다. 에베소서 5:23, 내 번역, 그는 그의 신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25절. 그는 그녀의 공급과 보살핌에 아낌없이 바칩니다. 29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에게 보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그녀의 연인이 그녀를 향해 전진하는 것의 수혜자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한 남편, 곧 그리스도에게 약혼시킨 아버지로서 말합니다(고린도후서 11:2).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순수함으로 그분 앞에 내세우고자 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헌신에서 빛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3절). 우리도 사기꾼들과 그들이 우리를 영적 간음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신부가 결혼의 속박으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도 사랑하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에베소서 5:23, 24).

캠벨의 말은 바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결합에 대한 우리의 요약을 적절하게 마무리합니다. 인용문, 남편과 아내의 은유적 결합과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깊은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 은유는 개인적이며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다른 은유를 훨씬 뛰어넘는 친밀감의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인용문, 그리고 물론 캠벨의 책인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결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두 구절에 나타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은 새 옷입니다.

두 구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직접 언급합니다(로마서 13:14, 로마서 3:27).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옷을 입는다는 은유를 직접 사용합니다. 바울은 직설법과 명령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첫째, 지시적 인용문,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너희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가까운 인용문, 갈라디아서 3:27.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입었고, 그와 연합되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인 세례의 그림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이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준비하지 말라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과 14장의 가까운 인용문에서처럼요.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가 살았던 것처럼 살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세례에서 상징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한 번만 입지만, 우리는 평생 그 옷을 갈아입고 살아갑니다. 다른 두 종류의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본문은 신자들이 새로운 기독교적 생활양식을 나타내기 위해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4:21-24, 골로새서 3:9-14. 그들은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룩함, 연민, 인내의 새로운 특성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본문은 신자들이 경험할 종말론적 변화를 지적하기 위해 옷의 변화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53, 54. 고린도후서 5:2-4. 이 본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그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입히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새 땅에서 영생을 위한 부활한 몸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자주 피하는 신비한 언어인데, 그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네 번이나 교회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충만함, 또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으로 채워짐이라는 고귀한 용어로 언급합니다. 이 구절들은 두 번은 명시적으로, 두 번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22, 23.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2, 23. 에베소서 3, 19.

목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도록 말입니다. 에베소서 3:19. 에베소서 4:13.

또 다른 목표 진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인간성을 갖추 때까지. 에베소서 4:13.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9, 10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여러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골로새서 2:9, 10. 에베소서 1:22, 23.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주어진 지위로서, 그리고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모든 것을 강력한 존재로 채우는 승리의 주님으로서, 그는 교회에 지위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골로새서 2:10.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22.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충만함을 수행해야 할 과제이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주십니다.

그는 에베소서의 인용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19. 바울의 목표는 다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3. 오브라이언이 이 구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22, 23의 충만함에 대한 구절은 인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든 것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의 우월성은 그의 백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습시다. 허. 흥미롭게도 그리스 철학에서 그랬듯이요.

23절의 마지막 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추가 요점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충만함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것은 참조이며, 참조 대상은 교회입니다.

모든 것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우주를 채우는 것으로 그의 주권적 통치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것은 교회를 그의 영, 은혜, 은사로 특별한 방식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그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 인정할 만큼 신비롭고 소홀히 여겨지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다른 텍스트들을 읽고 싶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3:14-19.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에게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광의 부요함에 따라 그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의 영을 통해 능력으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려 하심이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11 에서 16까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의 일치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밀려다니며 잡혀가서 온갖 교훈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간사함과 교활함과 속이는 계략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온 몸이 모든 관절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각 지체가 합력하여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사도가 이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주요 요점을 요약하기 전에 이것들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2:9과 10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결합하여 그들이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여러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결론. 이 웅장한 주제는 세 가지 구별로 밝혀집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의 교회의 충만함을 구별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23.

그의 충만함에서, 신적 인간 그리스도는 교회에 충만함을 줍니다. 인용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고 당신은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2:9, 10을 인용문으로 닫습니다.

둘째,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에게 있는 우리의 충만함을 구별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의 충만함을 지시적 의미에서 이미 주어진 지위로, 그리고 과제는 아직 달성되어야 하는 것 또는 명령적 의미에서 있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부여된 지위이자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충만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의 강력한 존재로 채우시는 주님으로서, 그는 교회에 충만함의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며(골로새서 2:10), 교회는 그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22.

그것들은 이미 달성된 그러한 소통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의 충만함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충만함을 과업으로 주시고 도달해야 할 목표로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19.

바울의 목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3. 바울의 이미 아직 구별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계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적 행위,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라는 지시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지시적 진술에 기초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지시적 진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시적 진술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시적과 명령적은 함께 가고, 이 용어의 개념은 물론 그리스어 문법에서 그리스어 문법에서 가져온 다음 기독교 생활의 신학에 적용됩니다. 지시적과 명령적은 바울의 서신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말하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명령법으로 말하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말하고, 에베소서 4장부터 6

장까지는 명령법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건전하고 격려적입니다.

셋째,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논함으로써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님을 구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성한 충만함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에베소서 1:23, 골로새서 2:10,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고귀한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 방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건 겸손한 가르침이네요.

이미 우리는 신성한 충만함의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지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일시키는 데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아직 우리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것을 실현하고,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합치고, 또한 그의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고귀한 지위에 완벽하게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교회가 거룩함과 사랑을 추구하면서 발끝을 떼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거뜰거뜰 마주친 매우 중요한 바울의 사상은 내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내주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서 간략하게 그 가르침을 요약할 때입니다.

성령은 구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특별한 관계로 그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저는 바울이 내주함을 가르치는 곳을 적어도 16 군데나 꼽습니다. 로마서 5:5 로마서 8:9-11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도 생명의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니라.

죽음에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3:16 고린도전서 6:19-20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후서 1:21-22 고린도후서 1:21-22 6:16 고린도후서 13:5 갈라디아서 2:20 갈라디아서 3:13-14 갈라디아서 4:6 갈라디아서 4:7 갈라디아서 4:8 갈라디아서 5:9 갈라디아서 5:10 갈라디아서 5:11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소서 이는 여러분이 사랑과 그 밖의 것들로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골로새서 1:27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택하셨나니 이 비밀은 곧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요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골로새서 1:27.

골로새서 3:11, 여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받은 자와 할레받지 않은 자, 야만인과 스키타이인, 종과 자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11, 데살로니가전서 4:8,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8.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좋은 것을 지키십시오. 디모데후서 1:14. 이것들은 모두 바울이 거함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사도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백성, 개인과 교회 안에 거한다는 즐거운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보통 성령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며,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아들 안에 거하심을 돌립니다 .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10, 고린도후서 13:5, 갈라디아서 2:20, 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1:27, 3:11.

바울은 여섯 번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10, 고린도후서 13:5, 갈라디아서 2:20, 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1:27, 골로새서 3:11. 사도는 두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심을 연관시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아버지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22 . 에베소서 2:22, 고린도후서 6:16. 성도 안에 거하는 신격의 인격으로서 성령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옳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내주한다고 말한 곳이 16곳이 있는데, 그중 두 곳은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여섯 곳은 아들에 대해 말하고, 여덟 곳은 성령에 대해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주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구절은 내주를 성령에게 돌리지만, 내주를 성령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는 정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한 분의 신이 영원히 세 인격, 또는 의식의 양식,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이 인격들은 본질적으로 결코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적 인격들은 서로 내주합니다. 세 인격의 작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 인격의 본질의 통일성과 작용의 분리 불가능성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신자들이 삼위일체에 내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놀라운 결과는 종교 개혁 이후 세대의 루터교와 개혁 신학자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 세대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통 루터교와 정통 개혁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리차드 물러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개혁파와 루터교 모두 개혁 이후 정통파를 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정의에 내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귀중한 도구인 리차드 A. 물러 *라틴어 및 그리스어 신학 용어 사전* 에서 가져온 것이며, 주로 개신교 스콜라 신학에서 가져온 것으로, 루터교와 개혁 정통 신학자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즉,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의 두 번째 세대는 원래의 개혁자들보다 더 많은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작업을 체계화했습니다.

Muller는 “정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 또는 연합을 영적 결합, 즉 unio mystica 로 정의합니다. spiritualis ,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는 이가 정당화를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은 실질적이고 은혜롭게 효과적인 내주입니다.” 한 번 더. “정교회는 따라서 신비적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는 이가 정당화를 따르고 있는 것의 영적 결합으로 정의합니다 . 그것은 실질적이고 은혜롭게 효과적인 내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주하심을 주목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에 의해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장막, 성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과 성전을 정의하듯이, 영의 내주가 교회를 정의하는데, 이는 모든 특정 교회에서 보편적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내주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모든 신자 안에 개별적으로 거하시고, 신자들이 모여 그를 경배할 때 단체적으로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 이야기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됩니다.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과 영원한 과거. 연합과 창조.

연합과 타락. 연합과 성육신. 연합과 그리스도의 사역.

연합과 새로운 창조. 앞으로 올 일, 즉 연합과 영원한 과거에 대비하기 위해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의 아들과 합하여 실제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이 요약에서 선택하신 주님은 어떤 단계를 건너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실 때, 그는 또한 구원의 일을 할 그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죽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과거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백성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락한 것으로 생각되는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으로 자신에게로 데려올 수단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창조 시의 결합,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신약성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시에, 우리를 그의 형상, 즉 오실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으로 창조함으로써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과 우리를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구조를 준비하셨습니다. 결합과 타락, 타락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정죄와 타락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된 요점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첫 조상과 하나님 사이에 생긴 분리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만 알았던 자들은 이제 표류하고 있으며,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영원 속에서 계획되었고, 우리가 진정한 형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준비된 것입니다. 그 형상은 아들인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며, 그 분리를 연결하여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성육신. 이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들이 신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인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이며,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5에서 바울은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즉 인간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분의 신과 신과 인간 사이의 한 분의 중보자, 곧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신은 신성과 인간성을 겸비하신 우리 주님의 인간성을 강조하여,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치는 데 사용할 길을 제공하시는 것이 그의 인간성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성육신하기 전의 아들인 신과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아들과 합해졌는데, 그는 땅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합해졌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더 나아가 승천하시고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그분과 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하는 일도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주와 합해 주실 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합과 새로운 창조는 지금 재생에서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해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딤후 1:9). 마지막으로 연합과 새 창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의 생명을 만드시고 연합과 재생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근거로 지금 거듭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궁극적인 표현은 우주, 하늘과 땅의 새 창조이며, 부활과 변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삶에 적합한 몸과 사람에서 다가올 시대에 삶에 적합한 몸과 사람으로 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개요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림과 주제, 결혼, 새 옷, 충만함과 거함입니다.